

# 분뇨 단속에 따른 정신적 고통이 너무 컸다.

정 관 수

마룡목장. 경남 창원군 동면 마룡리

나는 경남 창원군에서 15년째 목장을 하고 있는 골수 낙농인이다. 불명예스럽게도 축산폐수 단속에 150만원의 벌금을 물어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청탁을 받고 많이 망설였지만 나와 같이 폐수단속에 고통을 겪는 농가도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서로 위안을 삼고 폐수로 인한 고통을 조금이나 줄일 수 있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해서 이 글을 쓴다.

## ○ 81년 송아지 2두로 목장시작

나는 어린시절 우연히 광활한 푸른 초원에서 얼룩소가 풀을 뜯고 노니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목장의 정경을 보고 이다음 커서 저렇게 멋있는 목장을 만들어 목가적인 삶을 살아보겠다는 신념을 가졌다.

군제대와 함께 어린시절 꿈을 실현코자 젓소 송아지 2마리를 구입하여 목장의 길에 입문하였다. 그러나 목장을 하고 있는 전국의 동업자들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였으리라 여겨지는데 목장일이란 한쪽의 그림과 같이 멋있고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었다. 나의

크나큰 오산이고 착각이었던 것이다. 별이 보이는 새벽부터 시작하여 별이 보이는 밤늦게까지 해도 해도 끝이 안보이는 육체적인 노동과 옆친데 덮친격으로 기술과 경험미숙으로 각종 질병에 걸려 도태시키는 등의 아픔도 있었으며 취약한 자본도 목장 경영의 어려

다. 마산의 목장지가 공업화에 밀려 목장이전이 불가피하여 적정부지 여기저기 찾은 결과 우리나라에서도 물 좋고 아름다워서 수백만 마리의 철새들이 찾아오는 철새 도래지로 유명한 준암저수지가 바로 앞에 보이는 경남 창원군 동면 마룡리로 86년 8월 이전하였다.

어린시절 꿈과 같이 멋있는 목가적인 생활은 아니지만 우리가족인 아내(이애자씨)와 아들(종민), 딸(원주)과 같이 현실히 만족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 ○ 목장규모

현재 우리 목장의 규모는 사육두수 40두로 이중 착유우 37두, 숫소비육우 3두며 파이프라인이 설치된

75평의 우사, 최근 신축한 톱밥발효우사겸 운동장 200평, 과수원(단감) 1,200평, 논 2,000평도 경작하고 있다. 일일 우유생산량은 520kg이며 세균수 1등급, 체세포 1~2등급을 받고 있다.

우리 목장의 특징이라면 준암저수지를 바로 앞을 두고 있어 폐수단속으로 경을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넓은 준암저수지 주위의 야생초(갈대등) 생산이 무궁무진해 아주 중요한 조사료 공급원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동면 20여명의 낙농가들은 조사료를 생산하는 밭이 따로 없이 준암저수지에서 야생초를 베어 사양하고 있다.

#### ○우사시설 및 폐수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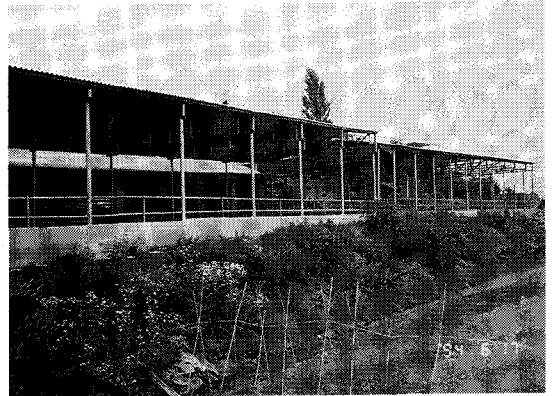
우사시설은 86년 목장을 이전하면서 75평의 우사를 신축하고 파이프라인을 설치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보통 낙농가처럼 300평의 운동장 사양을 하여왔다. 분뇨처리 시설은 우사신축시 우사를 허가 받고자 법규정에 의거 정화조 탱크를 시설하여 최근까지 사용하여 왔다.

#### ○폐수단속 및 처리

목장은 86년 이전후 아무탈 없이 꾸준히 성장하여 왔는데 90년대 들어서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공해로 인한 환경오염이 사회문제로 심각히 대두되면서 우리지역은 철새보호 구역으로 철새의 안식을 위한 폐수단속이 시작되었다. 물론 우리 목장 주위에는 양돈농가가 있고 공장도 있어 전에도 군이나 면에서 수시로 나와 점검하고 지도하였는데 어느날 갑자기 검은 짙차에서 4~5명이 내리더니 분뇨를 채취한 후 바로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요구하여 영접결에 도장을 주었더니 며칠 후 검찰청 출두 요구서가 나왔다. 나중에 알고보니 검찰, 환경처 합동 단속반이었다.

처리 결과는 1차 단속에 걸려 벌금을 낸 양돈농가 2명은 그 자리에서 구속시키고 나에게는 앞으로 또 한번 위반하면 구속이라는 엄포와 150만원의 벌금이 떨어졌다.



4,200만원을 투자하여 200평의 톱밥 발효우사를 신축하여 폐수단속에서 해방 되었다는 마름목장

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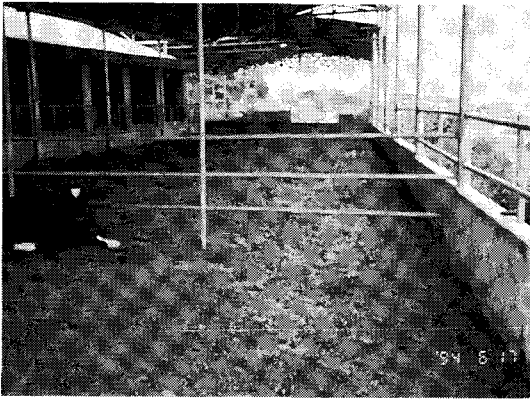
그 후 다시 한번 위반하면 구속된다는 생각이 머리속을 떠나지 않았다. 소가 좋아서 키우다가 팔자에도 없는 감옥소 신세까지 지지 않나 해서 항상 불안한 나날이었다.

분뇨처리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몇천만원의 투자비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묻어둔 정화조에 분뇨가 차면 바로 과수원에 호수를 연결 뿌려주고 매일 매일 운동장에 청소를 하였는데도 불안한 마음은 여전하였다. 지나가는 짙차만 보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심장병이 걸릴 지경이었고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 심각히 전업도 고려했었다. 하지만 젖소와 땀은 인연과 삶의 터전을 쉽게 버릴수가 없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군에 찾아가 우사시설자금을 사정하니 일단 우사를 신축하면 우사시설 자금 3천만원을 융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즉시 300평의 운동장에 톱밥발효우사를 신축에 들어가 200평의 톱밥발효우사를 지었다. 투자금액은 4,200만원 소요되었다.

4,200만원이란 많은 돈을 들여 우사를 지어 폐수시설을 갖추고 나니 돈에대한 부담은 둘째하고 두발 쪽 뺀고 잠을 잘 수 있어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다.

톱밥우사는 한달에 톱밥 300포씩 넣어서 한달에 한 번씩 갈아주고 있으며 여기에서 나오는 분뇨는 과수



톱밥우사는 한달에 톱밥 300포씩 넣어서 한달에 한번씩 갈아 주고 있다.



분뇨를 단감과수원의 거름으로 활용. 작년 1천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우리지역은 전국에서 유명한 철새도래지 준암저수지가 있다. 겨울철 천둥오리, 고니등 이름모를 철새들이 날아오면 정말 장관을 이룬다. 이모습을 해마다 보며 준암저수지는 영원한 새들의 안식처로 남길 소원하는 바이다. 그래서 정부의 과잉 단속도 어느정도 이해한다. 그러나 대부분이 영세농인 농가들로서는 그 많이 소요되는 돈을 어디에서 구해 우사를 짓고 폐수시설을 갖추겠는가 돈이 없으므로 시설은 갖추지 못하여 결국에는 감옥소 아니면 폐업해야만 한다.

원에 거름으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정화조는 착유시 생기는 오줌과 물을 모아서 바로 과수원으로 배출시키고 있다. 정화조에서 연결 저수지로 내려가던 파이프관을 완전히 없어 버려 이제 우리 목장은 한방울의 분뇨도 유출이 없다.

#### ○폐수단속에 대한 의견

앞서 밝혔지만 우리지역은 전국에서 유명한 철새도래지 준암저수지가 있다. 겨울철 천둥오리, 고니등 이름모를 철새들이 날아오면 정말 장관을 이룬다. 이모습을 해마다 보며 준암저수지는 영원한 새들의 안식처로 남길 소원하는 바이다. 그래서 정부의 과잉 단속

도 어느정도 이해한다. 그러나 대부분이 영세농인 농가들로서는 그 많이 소요되는 돈을 어디에서 구해 우사를 짓고 폐수시설을 갖추겠는가 돈이 없으므로 시설은 갖추지 못하여 결국에는 감옥소 아니면 폐업해야만 한다.

나와 함께 단속에 걸려 구속되었던 양돈농가는 감방생활의 충격으로 정신이상증세까지 보이더니 폐인이 되다시피 했다. 그도 젊은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인데 돼지 키우다 인생을 망친 께이 되었다.

낙농도 축산업도 국민의 식량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산업이다. 그러므로 계속 지키고 발전해야 한다.

결론은 하나이다. 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투자이다. 이속에서 만이 환경도 지켜지고 축산도 발전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농가들도 환경에 대한 인식제고를 하고 계속해서 낙농을 할 생각이면 좀 무리를 해서라도 분뇨시설을 갖추어 폐수단속의 스트레스에 해방되어 보자. 돈은 둘째이고 마음 편히 살 수 있어 이렇게 편할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많은 자식을 두어 자식들 뒷바라지에 특히 시골생활하는 나에게 애정을 갖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던 아버님이 며칠전 갑자기 돌아가셨다. 아버님의 명복을 빈다.